

## 사람들의 심리를 료해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림 현 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과의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것입니다. 사람의 속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알았다고 할수 없으며 사람을 모르고서는 사람을 움직일수 없습니다.》

(《김정일전집》 제8권 352페이지)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체험하는 심리는 다양하며 거기에는 일련의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이러한 심리현상과 법칙에 대하여 잘 알아야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볼수 있고 그들의 생활에 대하여 더욱 깊이 리해할수 있을뿐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정확히 예측할수 있다.

사람들의 심리를 료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무엇보다먼저 심리료해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다.

심리료해의 구체적내용을 이루는것은 우선 사람의 요구와 지향이다.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으로 알아야 할것은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이다.

사람들의 활동의 동기와 원인은 다양할수 있지만 궁극적인것은 그들의 요구와 지향이며 활동의 목적도 바로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은 일상생활에서 그들이 가지게 되는 관심과 호기심, 흥미를 통하여 알수 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대상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며 남다른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요구와 지향을 알려면 그들의 항시적인 관심과 호기심, 흥미를 알아보아야 한다.

요구와 지향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가지는 공통적인것도 있으며 개별적사람들이 제나름으로 가지는 서로 다른것도 있을수 있다. 사회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보람있게 살려는 정치사상적요구나 고상하고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에 대한 요구, 향학열, 탐구열로 표현되는 지적요구와 같은 정신적요구, 건전하고 풍부한 물질생활을 누리려는 요구 등은 누구나 다 가지는 공통적인 요구이다. 그런가 하면 매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제각기 자기의 요구를 가지며 거기에는 당면한것도 있는가 하면 전망적인것도 있다.

사람은 일정한 목적을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존재인것만큼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는데서는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아는것을 첫째가는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

심리료해의 구체적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감정정서이다.

심리를 파악하자면 구체적정황에서 체험하는 감정정서의 질과 색깔 그리고 매 사람의 고유한 감정체험방식 등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감정이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사람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심리현상이기때문이다.

감정정서는 심리현상가운데서도 가장 풍부한 내용을 이루고있으며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예민하게 표현된다.

감정에는 두개의 질 즉 윤패와 불패가 있다. 천태만상의 모든 감정은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 이 두가지 질중의 어느 하나에 속한다.

동일한 질의 감정이라도 그의 색깔과 양상은 정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르다. 뿐만아니라 감정을 체험하고 표현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정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정을 심각하게 체험하고 선명하게 표현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별치 않게 여기면서 감정을 단순하게 체험하고 표현한다. 감정정서는 인간의 요구에 기초하며 그의 실현 여부를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알면 사람들의 요구와 그 실현정도를 알수 있다.

심리료해의 구체적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여러가지 능력이다.

사람들의 심리를 알자면 인식과 실천활동에 필요한 여러가지 능력들 즉 사고력, 관찰력, 상상력 등을 비롯한 지적능력과 기능, 숙련, 재능 등을 알아야 한다. 물론 능력 그자체가 곧 심리라고 할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지적 및 육체적능력을 형성발전시키는 과정에 사람들은 그에 따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지니고 서로 다른 수준에서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독특한 심리를 체험하게 된다. 사람들의 능력을 알면 그와 관련된 다른 심리적내용들도 알수 있다. 누가 과학자라는것을 알면 단순히 그의 자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학술적인 문제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무슨 문제에 부닥쳐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리치적으로 랑철하게 파악하고 행동할것이라는것 등을 알수 있다.

심리료해의 구체적내용을 이루는것은 또한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개성심리적특성이다.

개성심리적특성은 다른 사람과 주위세계를 대하는 공고한 태도와 행동방식으로 나타나며 인간관계와 집단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것만큼 사업과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나타나는 사고방식과 감정의 체험과 표현에서의 특징, 습성화된 동작방식과 말투, 일상적으로 추구하는 활동분야와 일본새, 생활양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사람의 개성을 정확히 료해하여야 한다.

성격의 구성요소인 성미를 보아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떠들썩한것을 좋아하며 자기속을 그대로 드러내는 개방형이 있는가 하면 홀로 조용히 있는것을 더 좋아하며 좀처럼 자기 내색을 안하는 내성형이 있고 무슨 일이나 재빨리 해제끼고 결단을 내야 시원해하며 서두르곤 하는 급한 형이 있는가 하면 항상 완만하고 무사태평하며 일을 늦잡는 느린형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성격이나 취미 같은 개성적특성을 옹호하고 변호하려는 마음도 있다. 때문에 사람들의 개성심리적특성을 옳게 파악하는것은 그들의 심리를 아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심리를 료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심리에 대하여 잘 아는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는 뇌수의 기능으로서 그자체는 눈으로 볼수도 없고 측정평가할수도 없지만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과 하나로 련결되어있으면서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의 심리적체험은 주로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얼굴표정을 통하여 표현된다.

사람들의 심리는 우선 말을 통하여 표현된다.

말의 내용과 말투는 사람들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말의 내용은 주어진 순간의 사람의 심리상태는 물론 사상과 감정, 의지, 성격과 성미, 취미와 기호, 지능 등을 뚜렷이 나타낸다. 심리는 말투에서도 표현된다. 말투는 말의 속도, 억양, 말소리색깔이 한데 어울려 이루어진 언어표현방식으로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심리적체험이

다른데 따라 말투가 달라진다. 말은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전면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적극적인 수단이다. 얼굴표정이나 행동, 몸짓 등과 같은것도 인간의 심리를 드러내 보이지만 말처럼 집중적으로, 풍부하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말을 통하여 표현된것은 그 어느 다른 수단으로 표현된것에 비하여 명백하다.

사람들의 심리는 또한 행동을 통하여 표현된다.

행동, 동작의 성격과 수준, 동작방식 등을 통하여 사람의 심리가 잘 드러난다.

행동, 동작의 성격은 그 행동의 사회적성격을 의미하며 그것은 어떤 요구와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것인가를 나타내는것으로서 사람의 욕망, 감정, 의지 등에 대하여 잘 알수 있게 한다.

행동, 동작의 수준은 동작의 정확성과 속도로 나타나며 그것은 그 사람의 직업적특성, 기능과 숙련, 취미를 잘 보여준다. 동작방식은 같은 동작이라고 하여도 그 모양새의 차이를 나타내는것인데 인간의 재능과 실천능력, 성격과 성미, 취미와 기호 등을 표현해준다. 실례로 어떤 사람은 일을 해제끼는데서 시원스럽고 결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섬세하게 일처리를 한다. 이러한 동작방식에서의 차이를 보고 매 사람의 심리적특성을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다. 물론 행동, 동작가운데는 다의적이고 애매한것도 있을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의 말과 주위환경과의 련관속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는 또한 얼굴표정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인간의 얼굴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와 같은 사상감정, 복잡한 심리의 섬세한 움직임을 잘 나타낸다. 얼굴에서도 특히 눈과 얼굴색의 변화, 여러 부분들의 비례와 균형의 조화와 파괴는 사람의 심리를 그대로 표현한다. 얼굴의 개별적부분들가운데서 눈은 사람의 내면세계를 가장 예민하게 나타낸다. 눈은 말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는 섬세한 감정과 미묘한 심리적변화와 굴곡까지도 나타낸다. 얼굴색의 변화도 여러가지 심리적체험상태를 잘 나타낸다. 얼굴에는 잘 발달되고 예민한 수많은 표정근육과 미세한 모세혈관들이 있으며 이것들은 감정상태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얼굴색의 변화를 가져온다.

사람들의 심리는 그들의 활동의 결과에 이루어진 각이한 사물현상들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사람들이 늘 쓰곤 하는 일기나 편지 등이 그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것은 물론 론 문이나 그림, 연구성과나 기타 여러가지 창조물들, 꾸려놓은 생활환경이나 쓰고사는 물건들 등이 사람들의 심리를 알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에서는 사람들의 얼굴표정뿐만아니라 활동의 결과물들도 놓치지 말고 세심하게 관찰하여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료해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는 다음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전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면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전면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생활의 한두대목이나 한두번의 언행을 놓고 사람들의 심리전반을 알았다고 할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과정에서 일관하게 나타나는 공고한 심리적특징을 볼뿐아니라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호상련관속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것을 말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생활의 여러 계기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호상련관속에서 보아야 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공고한 특징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말과 행동에 대하여 도식적으로가 아니라 해부학적인 분석평가를 진행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수행하는 말과 행동이 곧 심리인것은 아니며 그것은 그의 심리를 나타내는 외적현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은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항상 그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볼수도 없다.

그러므로 해부학적인 분석력을 지니고 생활에서 나타난 현상을 립체적으로 깊이있게 분석평가하여야 사람들의 심리를 옳게 파악할수 있다. 생활에서는 무심히 오고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깊은 사연을 담고있을수 있다는것을 생각하고 분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한 객관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객관성의 원칙을 지킨다는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현실에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고 판단한다는것을 말한다.

객관성의 원칙을 지키자면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여야 한다.

선입견은 주어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덮어놓고 가지는 그릇된 견해로서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자기가 본 한두번의 인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 가지게 된다. 선입견은 사실자료가 밝혀지면 극복되지만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모든것을 그에 맞추어 해석하기때문에 사람의 인격과 생활, 심리에 대하여 잘못 리해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편견은 사실자료가 밝혀져도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 부정적견해이다. 편견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굳어진 관점이나 사고방식, 태도를 버리려 하지 않는데로부터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견해와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한사람은 좋게 보는 특징도 다른 사람에게는 나쁘게 보이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내면세계와 행동을 그릇되게 해석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사업에서는 상대방의 위치에 자기를 세워보고 자기의 립장에 상대방을 세워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공정하게 보고 평가하여야 한다.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아야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정확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동시킬수 있는 능숙한 방법론을 소유하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대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구들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할것이다.